

칼뱅의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

- 덕 윤리의 조망* **

문시영 (남서울대,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덕 윤리로 읽는 칼뱅, 그리고 ‘제자’의 사회적 영성

1. 칼뱅의 사회적 영성, 덕 윤리로 읽기
2. 사회적 영성에 대한 칼뱅의 관점: 제자도에 근거한 윤리
3. 사회적 영성의 과제: 성품화로서의 성화

III. 나오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1.07>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1042172).

** 이 논문을 위한 자료수집 목적으로 2024년 7월 Fuller Theological Seminary를 방문한 기간에 필자를 환대해준 Sebastian Kim 학장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술면담을 통하여 통찰을 얻게 해준 Brad Strawn 교수, Mark L. Branson 교수, 그리고 Ryan K. Bolger 교수께도 감사드립니다.

• ABSTRACT •

J. Calvin on Social Spirituality based on Discipleship

Prof., Moon, Si Young (Namseoul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criticism that Korean Christianity, despite its strong Calvinist influence, lacks social spirituality — characterized by responsibility, communication, empathy, and hospitality — and seeks guidance from Calvin himself on this matter. Calvin emphasizes the restoration of ‘social spirituality based on discipleship,’ which is fundamentally rooted in union with Christ and the imitation of Him. Calvin’s perspective effectively reinterprets Luther’s concept of discipleship within a civic context, achieving a ‘civic spirituality’ that reflects the Reformation’s nature as an urban phenomenon in Geneva. Moreover, Calvin’s understanding of social spirituality aligns with Stanley Hauerwas’ interpretation of ‘sanctification’ as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character. Korean Christianity, with its emphasis on discipleship training, is encouraged to give greater attention to social spirituality and actively work toward embodying its virtues in contemporary society.

Key words: Discipleship, Social Spirituality, Responsibility, Communication, Empathy, Hospitality

I. 들어가는 말

윤리의식 결여 내지는 문제적 현실을 지탄받는 상황에서 칼뱅(John Calvin)의 통찰을 재발견하는 것은 한국기독교의 윤리성숙을 위해 절실한 과제이다. 시대와 사회의 요청에 대해 윤리의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발휘했다는 점에서, 칼뱅은 한국기독교가 올바르게 이해와 계승해야 할 인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칼뱅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적 현실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기독교는 칼뱅의 문제의식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이 글은 특히 '사회적 영성(social spirituality)'에 대한 성찰을 통한¹⁾ 칼뱅 재발견을 시도한다. 영성학에 관해서가 아니다. 기독교윤리의 지평을 확장하여 '시민사회의 제자윤리'를 제안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한국기독교가 사회적 영성을 소홀히 하거나 상실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한국기독교의 윤리성숙을 위한 과제들을 제안하려는 취지도 작동한다.

예를 들어, 한국기독교가 '공공성에 무관심하고 공적 책임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탄으로부터 '공적 책임(public responsibility)'의 구현을, '시민사회와 소통하지 않는 불통의 집단'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소통(communication)'의 추구를, '사회적 참사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난으로부터 '공감(empathy)'의 함양을,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환대하지 않

1) 이 글과 친화성을 가진 '사회적 영성'이라는 표현은 다음 글에서 볼 수 있다. 허도화, "교회의 사회적 영성 회복: 공동예배를 통한 사회화 훈련을 중심으로," 『신학과 선교』 52(2017), 195-232. 그리고 사회적 영성을 표방하는 다음 글들을 윤리학의 관점에서 응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Jesuit Centre for Faith and Justice eds, *Windows on Social Spirituality* (Dublin, Ireland: JCFJ, 2003); 김진호 외, 『사회적 영성』(서울: 현암사, 2014); 박명림, "사회적 영성, 내면윤리의 사회적 구상," 『복음과 상황』(2017.1.26일자).

는다’는 문제제기로부터 ‘환대(hospitality)’의 실천을 한국기독교의 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심의 배경에는 현대 인문학이 촉발한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대표적으로, 레비나스(Emmanuel Levinas)가 제기한 환대의 문제가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타자윤리를 통하여²⁾ 인문학적 지평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상과 관련된다. 굳이 공감과 환대의 윤리에 제한할 필요도 없이, 현대 인문학의 관심은 시민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국기독교가 공감과 환대를 비롯한 타자윤리에 무관심하다는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레비나스를 비롯한 현대 인문학자들의 주장에 관심하는 신학자들도 많아졌다. 공감과 환대의 사회적 영성에 대한 관심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폴(Christine D. Pohl)이 “환대에 관한 인문학자들의 논의가 기독교적 타당성을 지닌 것일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환대의 문제를 기독교윤리학의 관점에서 풀어낸 것은 중요해 보인다.³⁾

이것이야말로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을 말하는 본질적 이유이다. 이 글은 인문학이 촉발한 논의에 대한 ‘기독교 버전’을 제시하는 단계를 넘어 ‘시민사회의 제자윤리’로 나아가야 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하여 칼뱅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기독교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칼뱅의 재발견을 통하여 한국기독교의 윤리성숙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2) 윤대선,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서울: 문예출판사, 2017), 22.

3) Christine D. Pohl,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9), Preface, x.

II. 덕 윤리로 읽는 칼뱅, 그리고 '제자'의 사회적 영성

1. 칼뱅의 사회적 영성, 덕 윤리로 읽기

기독교의 사회적 영성을 성찰하기 위하여 칼뱅에게 주목하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자도를 따라 사회적 영성을 '복원' 및 '구현'했기 때문이다. 아쉬운 것은 칼뱅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이 부분이 드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칼뱅연구의 방대함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칼뱅의 영향이 지대한 한국기독교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넘쳐나고 있다. 윤리에 관한 연구도 적지는 않으나 칼뱅사상 전반에 관한 논의에서는 소수에 해당할 듯싶다.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칼뱅의 윤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예를 들어, '공동선(common good)'에 관한 논의는 공공신학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한국기독교가 주목해야 할 어젠더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⁴⁾ 또한, 칼뱅의 신학을 "사회포용의 관점에서 읽어내어 사회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신학의 지표를 제시"하려는 노력 또한 의미가 있다.⁵⁾ 더불어서, 칼뱅의 난민으로서의 삶을 조명하고 난민목회를 통한 현대의 실천을 다룬 경우도 중요한 선행연구이다.⁶⁾ 이러한 연구들은 '제네바의 과격한 개혁자로서의 칼뱅'이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성에 관한 성찰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⁷⁾

4)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하도록 권한다. 송용원, 『칼뱅의 공동선: 프로테스탄트 사회윤리의 신학적 토대』(서울: IVP, 2017).

5) 손수호, "칼뱅 신학에 나타난 신학의 사회포용에 관한 연구,"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63(2022), 181-209.

6) 안교성, "칼뱅의 난민사역과 한국교회에 대한 함의," 『한국교회사학회지』 45(2016), 155-181.

7) 이 부분에서는 옥성득의 관점, 즉 한국기독교의 역사에서 "해방 이전에는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칼뱅주의에서 1920년대 반기독교 운동에 대항하는 과도기에 적절한 성찰과 반응의 기회를 놓치면서 1930년대에 전투적인 근본주의로 전환되었다"는 주장도 참고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면서도 이 글은 칼뱅의 사회적 영성을 기독교윤리의 관점에서 성찰하고자 한다. 특별히, 덕 윤리(virtue ethics)는 칼뱅의 사회적 영성을 실천적 맥락에서 풀어낼 플랫폼이 되리라 기대된다. 칼뱅의 덕 윤리에 관하여, 아우구스티누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개념이 칼뱅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한 경우를 비롯하여 다양한 관점들을 참고할 수 있다.⁸⁾ 그리고 칼뱅을 덕 윤리의 개혁자로 읽는 관점 혹은 ‘칼뱅 이후 개혁된 덕 윤리(reformed virtue after Calvin)’을 비롯하여⁹⁾ ‘덕 윤리에서 칼뱅(Calvinist among virtues)’에 대한 논의까지 다양한 관점들이 이어지고 있다.¹⁰⁾

무엇보다도, 현대 덕 윤리를 주도하는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와의 교류를 통하여 기독교 덕 윤리를 펼쳐낸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는 칼뱅의 재발견에 중요한 통찰을 준다. 하우어워스는 이제까지의 논의들이 개신교의 중심은 구원론이며 덕에 관한 논의는 관심 자체가 없었거나 제한된 논의에 불과하다는 편견을 넘어서게 해준다.¹¹⁾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그가 덕 윤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됨에 관심하며 ‘제자도’를 풀어내었기 때문이다.

하우어워스가 칭의와 성화라는 이중 은혜를 근거로 성화를 그리스도인

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기독교공보』 2018.6.4.일자. *<https://www.pckworld.com/article>. (2024.6.10.접속)

8) David S. Sytsma, "John Calvin and Virtue Ethics: Augustinian and Aristotelian Themes," *Journal of Religious Ethics* 48/3(2020), 519-556.

9) 이 부분은 다음의 웹 자료를 참고했다. Jordan Ballor, "Reformed Virtue After Calvin" *<http://www.juniusinstitute.org/blog/reformed-virtue-after-calvin/>(2024.8.30. 접속)

10) Pieter Vos, "Calvinist among the virtues: Reformed theological contributions to contemporary virtue ethics," *Studies in Christian Ethics* 28/2(2015), 203.

11) 같은 글, 204.

의 '성품함양'의 관점에서 풀어낸 것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참조점이다. 인문학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을 넘어 기독교적 차별성을 지닌 사회적 영성을 말하는 길에서 제자도야말로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자도가 사회적 영성의 근거라는 점에서, '제자의 사회적 영성(disciple's social spirituality)'에 주목한다는 점이 이 글의 차별성이다.

2. 사회적 영성에 대한 칼뱅의 관점: 제자도에 근거한 윤리

1) 칼뱅, 사회적 영성을 복원하다

사회적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자도에 속한 것으로서,¹²⁾ 칼뱅은 종교개혁을 통하여 공적 책임과 소통 그리고 공감과 환대의 윤리로 구현했다. 칼뱅이 제네바의 맥락에서 사회적 영성을 구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국기독교가 망각하거나 혹은 소홀히 여기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칼뱅이 구현했던 사회적 영성의 복원을 위하여,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질문들을 소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질문은 이것이다. '기독교는 본래부터 공공성에 무관심하고 공적 책임을 구현할 근거조차 없는 것일까?' 칼뱅에 따르면, 공공성에 대한 관심과 공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기독교의 본질에 속한다. 칼뱅은 16세기 유럽에 나타난 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한 신학적 응답을 제시했다는 뜻에서, '공공신학자로서의 칼뱅(Calvin as a public theologian)'이라고 해석할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¹³⁾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그리고 정치적 역할에

12) 문시영, "사회적 영성의 기원과 복원: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49(2021), 205-237.

13) Wim A. Dreyer, "John Calvin as 'public theologian' in view of his *Commentary on Seneca's de Clementia*," *HTS Teologiese Studies/Theological Studies* 74/4(2018), 1-8.

서 칼뱅은 공공신학적 요소들을 보여준다.¹⁴⁾

칼뱅의 공공신학자로서의 면모에는 성경해석이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칼뱅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영성은 뿌리로서의 성경으로 돌아가는 특징이 있다.¹⁵⁾ 칼뱅의 성경해석은 사회, 정치, 경제 등 16세기 유럽의 사회적 도전들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도록 이끌어 주었다.¹⁶⁾ 공동선 개념은 칼뱅의 성경해석에 기초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지닌 공동체적 속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을 공동선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격상시킨다. 여기에는 칼뱅의 ‘일반은총(common grace)’ 개념이 전제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공적 삶의 다양한 영역에 들어가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¹⁷⁾

칼뱅은 공공성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광범위하게 실현되도록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강조한다. 가난한 자에 대한 정치적 관심,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사회의 도덕적 기풍을 발전시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¹⁸⁾ ‘직업소명설’과 경제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세계 내적 금욕주의’라는 베버(Max Weber) 명제를 비롯하여, 칼뱅의 종교적 태도와 제네바의 기존 경제정책 사이에 생겨난 혼합물 정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하여¹⁹⁾ 다양한 해석을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14) Minseok Kim, “John Calvin as Public Theologian?: Reading Calvin’s Theology in the Light of Contemporary Discourses in Public Theology with Reference to the Korean Context,” (Dissertation of Ph. D., Stellenbosch University, 2020), 178.

15) Alister E. McGrath, *Roots That Refresh*, 박규태 역,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서울: 좋은씨앗, 2021), 98.

16) P. C. Potgieter, “John Calvin on Social Challenges,” *Acta Theologica* 28(2019), 72-87.

17) Benyamin F. Intan, “Calvin and Neo-Calvinism on Public Theology,” *UNIO CUM CHRISTO* 6-2(2020), 44.

18) 조용훈, “칼뱅의 정치사상과 그 사회윤리적 함의에 대한 한 연구,” 『장신논단』38(2010), 215-236.

19) Alister E. McGrath, *A Life of John Calvin*, 이은진 역, 『장 칼뱅의 생애와 사상』(서울:

칼뱅이 경제와 직업에 대한 공적 책임에 관심했다는 사실이다.

칼뱅에게서 이러한 공적 책임의 문제의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칼뱅에 따르면, "성경은 모든 사람 가운데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준다."²⁰⁾ 하나님의 형상은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책임과 연대를 위한 윤리의 기초이다.²¹⁾ 이처럼 칼뱅이 '정의, 법, 인간존엄, 관용 등 이슈들을 신학적 응답과 책임의 맥락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칼뱅을 21세기에도 적실성을 지닌 '공공신학자(public theologian)'로 해석할 수 있겠다.'²²⁾

둘째 질문, 기독교는 '시민사회와 소통하지 않는 불통의 집단인가?'에 대한 칼뱅의 답도 분명하다. 소통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넘어서, 칼뱅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종교개혁자들의 영성은 삶의 모든 면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칼뱅은 제네바에서 펼쳐지는 매일의 삶이라는 현실세계, 나아가 거기서 비롯된 모든 문제와 가능성에 적극 관심했고²³⁾ 소통하고자 했다.

참고로, 현대 공공신학자 스태하우스가 『하나님과 세계화』(*God and Globalization*) 시리즈를 중심으로 세계화, 공정무역, 인권 등에 관한 변증(apology)을 통하여 공공신학을 펼쳐낸 근간에 카이퍼(Abraham Kuyper)의 영역주권론을 통한 칼뱅 해석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부분이다. 스태하우스는 공적 삶에서 종교들과 마주하며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한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²⁴⁾

비아토르, 2019), 402.

20) Ioannes Calvinus,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II.7.6. *다음의 번역본으로 읽었다. 문병호 역, 『기독교강요(최종판)』(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3).

21) Paul S. Chung, *Christian Spirituality and Ethical Life: Calvin's View on the Spirit in Ecumenical Context* (Eugene, OR: PickWick Publication, 2010), 103.

22) Wim A. Dreyer, "John Calvin as 'public theologian' in view of his 'Commentary on Seneca's Clementia'", 7.

23) Alister E. McGrath,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 57.

이것은 칼뱅을 소통의 공공신학자로 읽을 단초를 제공해준다. 스택하우스에 따르면, 칼뱅이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를 이어 ‘도시 에토스(urban ethos)’를 광범위하게 다루었으며²⁵⁾ 그것은 신학이 도시로 상징되는 사회 문제들과 인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 부분은 칼뱅의 종교개혁을 도시의 영성과 연관짓는 맥그래스의 관점과도 연관될 수 있다. 칼뱅이 도시 속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비판의 시선으로 세상을 긍정하는 영성을 제시한 것으로 읽어야 한다는 뜻이다.²⁶⁾

칼뱅이 마주한 시대는 혁명적이고도 위험천만한 것으로서, 초기 근대 사회로의 전환에 속한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단순히 응답할 것인가 혹은 시민사회로의 변화를 주도할 것인가를 고민했다.²⁷⁾ 칼뱅이 16세기 초까지 소규모 공동체에 불과했던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사회적, 도덕적 변화를 추진한 것은 새로운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²⁸⁾ 긍정적으로 읽으면, 칼뱅이 시대적 전환기에 사회적 변화를 위한 소통에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질문은 공감의 문제 즉 ‘기독교는 사회적 참사에 공감하지 않는가?’의 문제에 대해서이다. 칼뱅의 답은 오늘날의 ‘empathy’ 개념은 아니지만, 바울이 말한 ‘compassion’의 실천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타인의 고통에 관한 태도라는 점에서,²⁹⁾ 공감은 사회적 덕목 혹은 공적

24) Benjamin F. Intan, “Calvin and Neo-Calvinism on Public Theology,” 42.

25) Max L. Stackhouse, *Ethics and the Urban Ethos: An essay in social theory and theological reconstruction* (Boston, MA: Beacon Press, 1972), 88-89.

26) Alister E. McGrath,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 197-240.

27) Wim A. Dreyer, “John Calvin as ‘public theologian’ in view of his ‘Commentary on Seneca’s Clementia’”, 3.

28) 박효근, “주네브,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다,” 『서양중세사연구』46(2020), 45-73.

29) Brian Carr, “Pity and compassion as social virtues,” *Philosophy* 74(1999), 411-429.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³⁰⁾ 공감은 인문학 내지는 심지어 신경과학에서도 다루는 주제이지만, 기독교 고유의 가치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인문학적 역량을 발휘했던 저술이라고 할 수 있는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Senecae libri de Clementia cum commentario*)에서, 칼뱅은 공감과 관련된 몇 가지 암시를 준다. 칼뱅이 주해한 책은 에라스무스가 1515년에 편찬한 세네카 전집에 포함되어 있었다. 1529년 개정판에서 에라스무스는 자신이 출간한 세네카 저술을 개선하려는 사람을 초대한다고 했고 여기에 칼뱅이 응답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³¹⁾

칼뱅이 세네카의 관점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compassion'으로서의 공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간됨을 위한 인문학의 진정한 표지라고 말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칼뱅은 인간됨에는 덕스러운 삶이 포함되며 그것은 공감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윤리학적 함의를 지닌다고 보았다. 인간됨과 인문소양(humanitas)을 지니고 행위한다는 것은 친절, 공정, 공감의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³²⁾ 이것은 칼뱅이 세네카 당시의 종교에 대한 폭압과 군주들의 난폭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읽을 수 있겠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대한 칼뱅의 관점은 공감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1542년, 유럽을 휩쓴 전염병이 제네바에 닥쳤을 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칼뱅은 기꺼이 병자들을 돌보고자 했다.³³⁾ 그리고 사회적 재난을 당하여 남 탓을 하기보다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재난

30) Nichole Flores, "Mercy as a public virtue," *Journal of Religious Ethics* 48(2020), 458-472.

31) Alister E. McGrath, 『장 칼뱅의 생애와 사상』, 121.

32) Wim A. Dreyer, "John Calvin as 'public theologian' in view of his 'Commentary on Seneca's Clementia'", 5.

33) Scott M. Manetsch, "Calvin's Company of Pastors: Pastoral Care and the Emerging Reformed Church, 1536-1609," *Oxford Studies in Historical Theology*(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85.

으로 여겨 참회해야 한다고 말한다.³⁴⁾ 칼뱅은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과 훈련이라도 해석하면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심방하여 공감하고 위로하였다.

넷째 질문, ‘기독교는 사회적 약자들을 환대하지 않는가?’의 문제에는 예정론과 관련된 신학적 재해석의 필요성부터 짚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어떤 인간은 복락으로 어떤 인간은 저주로 예정했다는 전통적 이중예정론에 내포된 신적 ‘배제’와 ‘차별’의 논리가 환대를 다루기에 어려움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하나님의 절대 작정’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지’로 재해석하면 하나님의 구원론적 선택이 인류를 향한 무조건적 환대를 설명하는 신학적 언어와 문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³⁵⁾ 나아가, 환대에 대한 관심이 큰 현대사회에서 “표면적으로 배제의 논리가 강해 보이는 예정론을 기독교론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환대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점이다.³⁶⁾

사실, 이러한 신학적 추론보다 더 직관적인 답이 칼뱅 자신에게 있다. 칼뱅 자신이 종교난민이었다는 사실에서 가장 분명한 답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칼뱅은 난민의 정체성을 지녔고 난민목회를 실천함으로써 환대의 중요성을 확인해 준다.³⁷⁾ 칼뱅은 “자신의 처지를 시편의 다윗과 동일시했다. 프랑스에서 도피해야만 했고 제네바에서도 추방되어 스트라스부르의 3년 동안 프랑스 난민들을 목회했으며, 다시 제네바에 돌아와서도 난민들을 위하여 목회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피난처’ 개념은 시편의 용어이면서 칼뱅의 관심사였다.”³⁸⁾

34) Ioannes Calvinus,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V,12,15.

35) 김진혁, “환대와 선택: 환대의 신학을 위한예정론의 재해석,” 『장신논단』 53/1(2021), 95-125.

36) 같은 글, 97.

37) 안교성, “칼뱅의 난민사역과 한국교회에 대한 함의,” 155-181.

38) Herman J. Selderhuis, 황대우 역, “피난민으로서의 칼빈,” 『칼빈과 사회』(부산: 고신대

이러한 맥락에서, 나그네를 돌보는 일이 모든 사람의 상호의무라고 했던 칼뱅의 관점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맞닿아 있다. 칼뱅에 따르면, “나그네들은 대체로 결핍된 사람들로서, 악에 대항하여 변호해 줄 사람이 없기에 안전한 가정에 있을 때보다 폭력과 억압을 더 많이 당하고 있으며, 약탈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³⁹⁾

칼뱅의 관점에 대해 풀은 중요한 반응을 보여준다. “인간이라는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처럼 인정해야 한다.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지음 받았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한다.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난과 필요를 함께 해야 한다.”⁴⁰⁾ 이것은 기독교 고유의 환대를 설명하는 근간이다. 환대의 전통은 여러 문화에서 볼 수 있으나 기독교의 환대는 나그네를 섬김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환대와는 결이 다르다. ‘타인 됨’을 강조하는 현대의 철학적 논의들과 달리, 기독교의 환대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나그네를 이웃으로, 나아가 형제자매로 맞이하기 때문이다.⁴¹⁾

다만, 풀은 칼뱅이 환대를 제네바 정부의 몫으로 강조하여 공공성을 증대시켰지만 교회와 가정의 역할을 사적인 것으로 축소시켰다고 아쉬워한다.⁴²⁾ 이 문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것이 있다. 제네바의 시립병원과 복지시스템은 칼뱅이 아니었어도 운영되었을 공적인 것이지만, 정작 난민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칼뱅이 사립복지기금을 독려하고 ‘집사’ 직을 세워 돕게 한 것은⁴³⁾ 그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환대를 위한 목

출판부, 2010), 217. *이름 표기와 관련하여, 문헌에 칼빈으로 표기된 경우는 존중하기로 한다.

39) Christine D. Pohl, *Making Room*, 정옥배 역, 『손대집』(서울: 복있는 사람), 111.

40) 같은 책, 85.

41) 같은 책, 122.

42) 같은 책, 71.

적이었다.

제네바의 난민이었던 칼뱅은 난민을 환대하는 일만큼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의무는 없다고 말한다.⁴⁴⁾ 칼뱅이 추구한 환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현대 인문학의 관점과 차이가 있다. 기독교의 환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연관되며⁴⁵⁾ 그것은 중심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변두리를 위한 영성’이다.⁴⁶⁾ 이러한 기독교적 정체성을 지닌 사회적 영성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복원된 사회적 영성, 제자도에 근거하다.

(1) 칼뱅의 사회적 영성: 제자도의 구현

분명히, ‘책임’, ‘소통’ 그리고 ‘공감’과 ‘환대’의 가치들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주목하고 요청하는 사항들이다.⁴⁷⁾ 오늘의 관점에서 칼뱅의 교훈들을 재해석하는 데 따른 부담이 없지 않으나, 칼뱅이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영성을 이미 구현했다는 사실 자체로 의미가 크다. 이렇게 현대를 기준으로 칼뱅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를 문제 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칼뱅이 구현한 사회적 영성은 현대 인문학자들의 관심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칼뱅의 사회적 영성은 기독교적 정체성을 지닌 것으로서,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이다. 혹은 ‘제자의 사회적 영성’이다.

43) 윤천석 역,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칼빈과 사회』, 176.

44) David B. Calhoun, *Knowing God and Ourselves*, 홍병룡 역, 『칼뱅을 읽다』(서울: 조이북스, 2018), 221.

45) Christine D. Pohl, 『공동체로 산다는 것』, 234.

46) Christine D. Pohl and Christopher L. Heuertz, *Fiendship at the Margins*, 박세혁 역, 『약한 자들의 친구』, (서울: 복있는 사람, 2012), 137.

47) 네 가치를 한정하여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 이슈들을 상징적으로 다루는 맥락일 뿐이다.

칼뱅이 『기독교강요(최종판)』 제Ⅲ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성을 말하고(Ⅲ.6) 자기부인(Ⅲ.7), 십자가를 지는 삶(Ⅲ.8), 장래의 삶에 대한 묵상(Ⅲ.9) 이생의 것들의 바른 사용(Ⅲ.10)을 말한 것은 제자도의 핵심가치이다.⁴⁸⁾ 칼뱅이 말하는 제자도의 첫 걸음은 '자기부인(self-denial)'이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사역을 보내시며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자기부인(마16:24)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도덕철학자들은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의 형성을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 됨을 향한 관심에서는 자연인으로서의 자기부인이 필수적이다.⁴⁹⁾ 자기부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으로서,⁵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께서 요청하신 제자도의 핵심이다.⁵¹⁾

그리고 자기 십자가(마16:24)를 져야 한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기에, 주님의 모범을 본받기 위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⁵²⁾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이르는 독특한 길이며 인간이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는 다르다. 제자들이 겪는 고통은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길과는 반대의 특성이다.⁵³⁾ 나아가, 장래의 삶에 대한 묵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는 현세의 삶에 대한 추악한 사랑이 걷어내고 그 자리에 더 좋은 것에 대한 소원이 더해야 한다.⁵⁴⁾

48) David B. Calhoun, *Knowing God and Ourselves*, 홍병룡 역, 『칼뱅을 읽다』(서울: 조이북스, 2018), 219.

49) Ioannes Calvinus, 『기독교강요(최종판)』, Ⅲ.7.1.

50) 같은 책, Ⅲ.7.8.

51) Randall C. Zachmann, “Called to a life of piety and holiness: John Calvin on discipleship,” in Andrew Hays and Stephan Cherry, eds., *The Meaning of Discipleship: Being Disciple Then and Now* (Eugene, OR: Wipf & Stock, 2021), 75~78.

52) Ioannis Calvinus, *Ioannis Calvini Commentarii*, 박문재 역, 『칼빈주석 공관복음』(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24), 462.

53) Randall C. Zachmann, “Called to a life of piety and holiness: John Calvin on discipleship,” 77.

또한 올바른 사용 즉 ‘현세의 삶을 누리고 그 유익을 구가하는 삶의 방식’이 요청된다.⁵⁵⁾ 그리고 제자의 삶은 소명에 합당한 목적을 지향해야 하며, 주께서 맡기신 소명을 ‘초소’처럼 여겨야 한다.⁵⁶⁾

칼뱅의 이러한 제자도는 그리스도를 ‘따름(following)’ 혹은 ‘본받음(imitating)’이라고 할 수 있으며,⁵⁷⁾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 cum Christo)’을 메트릭스로 삼아⁵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는 길이다. 이 부분에서, 칼뱅이 ‘그리스도의 모방(Imitatio Christi)’에 관한 중세적 위험을 극복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모방을 본받는 자의 업적으로 삼는 공로주의와 영적 엘리트주의를 극복한다, 나아가, 기계적이고 노예적 본받음을 넘어 자발적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참여할 것을 제시한다.”⁵⁹⁾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응답의 과제를 지니고 있다. 공적 책임, 소통, 공감, 환대의 실천이 그것이다. 시민사회가 요청하는 것이어서 혹은 현대 인문학이 관심하는 가치들에 대한 기독교 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사회적 영성을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어야 하며 현대 인문학자들의 그것을 넘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현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칼뱅이 『주석』(*Ioannis Calvini Commentarii*) 시리즈 『공관

54) Ioannes Calvinus, 『기독교강요(최종판)』, III.9.4.

55) 같은 책, III.10.1.

56) 같은 책, III.10.6.

57) Guenther H. Haas, “Calvin’s Ethics,” in Donald K. McKim,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95.

58) Ashima Varma, “Sin, Grace, and Virtue in Calvin: A Matrix for Dogmatic Consideration,” *Scottish Bulletin of Evangelical Theology* 28/2(2010), 180.

59) 김선권, “칼뱅에게서 그리스도의 모방: 삶의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 『한국개혁신학』 50 (2016), 130-168.

복음』에서 풀어낸 '선한 사마리아인'의 제자도는 사회적 영성의 근간이다. 마태복음 22:34-40, 마가복음 12:28-34, 그리고 누가복음 10:25-37을 한곳에 모아 다루면서, 칼뱅은 세 본문 모두가 '서기관이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했다는' 공통점에 주목한다. 이웃 사랑과 관련하여, 칼뱅은 그리스도께서 친구가 아니면 이웃이 아니라는 생각하는 서기관으로 하여금 '가장 큰 낯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셨다고 말한다.

이 비유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우리의 이웃은 혈육들이나 친구들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마리아인을 제사장 및 레위인과 대비시키신다. (...) 우리는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악한 궤변으로 지워 버리고자 했던 사실, 즉 인류는 모두 한 형제라는 사실을 거울을 보듯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이 비유 속에서 원수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게 공홀과 자비를 베푸는 모습은 사람의 본성은 사람이 서로를 돕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⁶⁰⁾

칼뱅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요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으며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칼뱅은 이웃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⁶¹⁾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보는 관점에는 예외 없이 인류

60) Ioannes Calvinus, 『공관복음 주석』, 976.

61) Ioannes Calvinus, 『기독교강요(최종판)』, III,7.6.

전체를 포함한다.

당신의 손길이 아쉬운 사람 누구라도 맞닥뜨리게 될 때, 그에게 공을 쏟지 않고 피해 갈 명분이 당신에게는 없다. “그는 이방인이다”라고 말할 것인가? 그러나 여호와와는 당신이 그와 친숙해질 수밖에 없는, 당신의 골육을 멸시하지 말라는 표지를 그에게 새겨 두셨다. (...) “그를 위한 수고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할 것인가? 그러나 여호와가 그를 당신에게 맡기시는 이유는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모든 것을 내 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⁶²⁾

마우(Richard Mouw)는 칼뱅의 이러한 관점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실천의 핵심에 이웃 사랑이 있다고 강조한다. 낯선 이들을 이웃으로 환대하면서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웃 사랑을 구현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이자 제자도에 속하기 때문이다. 환대의 윤리를 말하는 현대 인문학의 관점을 넘어서, 기독교의 환대는 이웃 사랑을 위한 능력을 연약한 인간에게서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찾는다.

마우에 따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룩한 명령은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 부과하기를 즐기는 독재자가 내린 것이 아니다. 매킨타이어가 칼뱅의 신명론을 비판하면서 내세운 독재자 개념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마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웃으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스스로는 발휘할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이웃 사랑의 능력을 주신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 대 그들’ 아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서는’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게 한다.⁶³⁾ 칼뱅의 원문은 이렇다.

62) 같은 책, III.5.6.

63) Richard Mouw, “Loving Your Neighbor,” Blog published by Calvin Seminary. (2016.10.1.) *<https://calvinseminary.edu/article/featured/loving-your-neighbor/> (2024.10.5. 접속)

의심할 나위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선행으로 악행을 갚는 것, 비난을 축복으로 되돌리는 것은 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순제 인간의 본성에 아주 역행한다. 그러나 유일한 길이 있으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 우리는 사람들의 사악함에 착념하지 말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죄악을 지워 버리고 잊어버리게 하며, 그 아름다움과 고귀함이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도록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이다.⁶⁴⁾

(2) 칼뱅과 시민사회의 제자윤리

이웃 사랑의 제자도는 칼뱅에게서 시민사회의 이웃 되기로 나타난다. 이것은 칼뱅이 추구한 제자도의 맥락이 '제네바'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사회적 특성을 지닌 것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지닌다. 예수께서 제시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제자도가 근대적 의미의 도시 내지는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말하자면, 칼뱅은 '제네바의 시민적 맥락에서의 제자도(discipleship in civic context of Geneva)'를 구현하고자 했다.⁶⁵⁾

칼뱅이 대면한 시민적 맥락의 배경에는 중세에 '수도원으로 들어간 제자도'에서 '일상으로 돌아온 제자도'가 있다. 제자도의 역사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수도원 운동에 문제를 제기했다. '수도원 제자도(monastic discipleship)'를⁶⁶⁾ 구현한 베네딕투스(Benedictus de Nursia)의 경우, 수도원에서의 제자도를 추구하며 환대의 영성에 관심했다.⁶⁷⁾ 하지만, 루터는

64) Ioannes Calvinus, 『기독교강요(최종판)』, III.7.6.

65) 이 표현은 다음 책에서 인용했다. Roger Haight, Alfred Pach III, and Amanda A. Kaminski, eds., *A Civic Spirituality of Sanctification* (New York, NY: Fordham University Press, 2024).

66) Johanna Marie Melnyk, "Following in Community: St Benedict's Flexible Vision for Faithful Discipleship," in Andrew Hayes and Stephen Cherry, *The Meanings of Discipleship*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21), 53.

중세의 수도원 운동이 복음 아닌 아리스토텔레스에 근간한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한다. 수도원 시절에 루터가 『니코마코스 윤리학』(*Ethica Nicomachea*) 등 아리스토텔레스에 능통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무지해서 나온 현상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닌 복음에 기초한 제자도를 추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것이 ‘일상으로 돌아온 제자도’의 배경이 된다. 루터가 수도원을 폐지한 것은 “특정한 시공에 한정된 수도원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매 순간 수도원의 본래적 정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⁶⁸⁾

칼뱅은 루터의 ‘일상으로 돌아온 제자도’를 계승하고 지평을 확장시킨다. 제네바를 배경으로, 일상에 대한 관심을 공공성을 지닌 시민적(civic) 관심으로 풀어낸다. 칼뱅에게는 제네바라는 도시가 일상이었고 ‘도시현상으로서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다.⁶⁹⁾ 칼뱅은 일상의 행위(everyday activity)를 위한 영적 행동지침을 제시했으며⁷⁰⁾ 시민적 섬김을 거룩한 소명으로 격상시킨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위한 성화에 대한 관심이 자리하는 뜻에서, 칼뱅의 사회적 영성은 ‘성화로서의 시민적 영성(civic spirituality as sanctification)’이라고 하겠다.⁷¹⁾

이러한 뜻에서, 칼뱅은 세상을 떠나 수도원에 들어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강조한다.⁷²⁾ 세상을 포기하고 떠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67) 문시영, “수도원에 들어간 제자도, 사회적 영성의 퇴거인가?: 베네딕투스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58(2024), 245-279.

68) 김선영, “16세기 종교개혁가들과 수도원 개혁,” 『기독교사상』 676(2015), 30-39.

69) Alister E. McGrath, 『장 칼뱅의 생애와 사상』, 161.

70) Roger Haight, Alfred Pach III, and Amanda A. Kaminski, eds., *A Civic Spirituality of Sanctification*, 105.

71) 같은 책, 108.

72) Alister E. McGrath, 『장 칼뱅의 생애와 사상』, 395.

삶의 전 영역에 비판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다.⁷³⁾ 칼뱅은 사회, 정치, 경제 등 구체적인 인간의 상황과 그에 따른 모든 위험성을 놓고 고민한다. 삶의 전 영역을 거룩한 성화와 헌신의 범위에 넣었다.⁷⁴⁾

여기에는 제네바에서의 교회가 마주한 상황으로서의 '사회 속의 교회'라는 관점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으며, 칼뱅의 이러한 관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soli deo gloria)'이라는 목적에서 읽어야 한다.⁷⁵⁾ 이러한 뜻에서, 칼뱅이야말로 사회적 영성의 전형이다. 그것은 갈등과 혼란이 넘쳐나는 제네바라는 도시의 현실과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추구한 결과였다.

마우의 주장을 응용하면, 칼뱅의 관점은 개인의 경건을 사적 영역에 제한시키지 않고 각자의 소명을 따라 공적 영역에서의 제자됨을 구현하는⁷⁶⁾ 사회적 영성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천덕꾸러기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기독교교를 향하여 중요한 통찰을 준다. 사회적 영성의 결여를 지탄받는 정황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공적 책임, 소통, 공감, 환대의 윤리를 실천하는 데 적극적이어야 함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3. 사회적 영성의 과제: 성품화로서의 성화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 영성은 칼뱅의 제자윤리에서 핵심적인 가치들이다. 안타까운 것은 칼뱅이 복원하고 구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73) 같은 책, 414.

74) Ioannes Calvinus, *Catechismus Ecclesiae Genevensis*. Q.107. 다음의 번역본을 참고하였다. Jean Calvin, *Catechismus, 1545*, "제네바 교리문답서," 장 칼뱅, 박건택 역, 『칼뱅작품선 1권』(서울: 부흥과 개혁사, 2021), 251-342.

75) Roger Haight, Alfred Pach III, and Amanda A. Kaminski, eds., *A Civic Spirituality of Sanctification*, 107.

76) Richard J. Mouw, *He Shines in All That's Fair: Culture and Common Grace*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Co., 2001), 87.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을 한국기독교가 계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적 영성의 결여를 지탄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독교가 관심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77) 이 부분에서,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를 소환할 필요가 있다. 칼뱅의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을 성화의 관점에서 다시 읽도록 일깨우고 있기 때문이다.

칼뱅의 성화에 대한 해석에서, 하우어워스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의 형성(the formation of the Christian’s character, 혹은 cultivating Christian character)’의 문제로 상정한다.78)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칼뱅의 성화 개념은 교리의 문제이기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통로가 된다.79) 성품의 함양과 관련하여, 덕 윤리가 내러티브에 관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하우어워스는 칼뱅이 강조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의 문제를 풀어낼 내러티브로 재해석한다.80)

그리고 성화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하우어워스는 두 가지 문제를 짚는다. 성화를 ‘신비한 변화’로 간주하는 경향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성화를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론적 인식에서 일종의 도덕 프로젝트로 오해하는 경향이다. 오히려 성화는 그리스도인이 달성해야 할 과제 혹은 성취해야 할 이상적 목표가 아니라 ‘변화되고’ ‘살아내야 할 비전이다.’81)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77) 한국기독교가 사회적 영성을 소홀히 여기게 된 원인과 과정에 관심하여 잘되는 영성의 문제와 연결지어 서술한 다음의 각각 다른 관점에서 조망한 두 글을 참고하도록 추천한다. 문시영, “잘되는 영성에서 사회적 영성으로: 공공신학적 조망,” 『선교와 신학』 57(2022), 37-66; “잘되는 영성에서 사회적 영성으로: 제자윤리의 조망,” 『기독교와 문화』 20(2023), 341-372.

78) Stanley Hauerwas, *Vision and Virtue: Essays in Christian Ethical Reflection*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69.

79) Stanley Hauerwas,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4), 10.

80) Pieter Vos, “Calvinist among the virtues: Reformed theological contributions to contemporary virtue ethics,” 212.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에 일치된 성품을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⁸²⁾ 그리스도인이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사건을 향하여 바꾸어 나아가는 것이요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⁸³⁾

실제로, 칼뱅은 성화를 인격의 문제와 연결시켰다. 칼뱅의 제자도는 거룩한 삶을 위한 성화의 맥락에서 읽어야 하며,⁸⁴⁾ 성화에 대한 칼뱅의 강조는 루터의 경우보다 강력한 것이어서 심지어 새로운 형태의 자기 의를 말하는 것 아닐까 하는 오해를 받을 정도였다.⁸⁵⁾ 칼뱅에게서 성화란 '인격의 형성'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훈련과 삶의 방식을 성화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보았다. 그리고 제자로의 부르심은 자기중심적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삶으로의 변화에 대한 요청으로서, 이것을 덕 윤리의 틀에서 설명하면 성품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뜻한다.⁸⁶⁾

나아가, 칼뱅은 교회의 '덕성함양(edification)'에 관심했다.⁸⁷⁾ 칼뱅에게서 교회는 성도들의 윤리적 삶을 형성시키는 공동체이다. 말씀의 선포와 권징의 시행을 통하여, 성도들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악으로부터 떠나게 되며 다시 악에 빠지지 않게 경책함을 받는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형성하게 된다는 생각이다.⁸⁸⁾ 칼뱅은 일상의

81) Stanley Hauerwas,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224.

82) 같은 책, 227.

83) 같은 책, 203.

84) Randall C. Zachmann, "Called to a life of piety and holiness: John Calvin on discipleship," 68.

85) Jennifer Herdt, *Putting on virtue: A Legacy of the Splendid Vice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198-199.

86) Edgar Danielyan, "Christian discipleship in the light of virtue ethics: imitatio Christi", 2.

87) 이상규, "칼빈의 구호활동," 『칼빈과 사회』, 178.

88) Guenther H. Haas, "Calvin's Ethics," in Donald K. McKim,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103.

제자들(ordinary disciples)이 영성교육, 일상의 기도와 예배, 규칙적인 시편암송, 성만찬 참여 등을 통해 성품형성에 참여할 것을 권한다. 칼뱅에게서 교회의 권장은 그리스도인의 성품함양을 위한 훈련(discipline)이며⁸⁹⁾ ‘평생토록 이어지는 형성의 프로그램(lifelong program of formation)’이었다.⁹⁰⁾

이것은 교회를 성품함양의 공동체(a community of character)로 읽는 하우어워스와 같은 맥락에 있다.⁹¹⁾ 그리고 책임, 소통, 공감, 환대의 사회적 영성은 ‘제자됨을 위한 과제’로 인식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영성은 ‘제자도에 근거한 덕목들(virtues)’이라고 읽을 수 있다. 사회적 영성을 제자도에 근거한 덕목들로 읽어내는 것은 사회적 영성에 대한 기독교 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나. 하우어워스가 자신이 평화를 말하는 것은 평화주의자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간 그 길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과 유사한 의의를 지닌다.⁹²⁾ 다시 말해, 사회적 영성 그 자체를 위해서라기보다 제자도를 구현하기 위한 ‘덕목’들로 인식되어야 한다.

책임, 소통, 공감, 환대의 가치들은 제자됨을 위한 덕목들로서, ‘성품화’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라는 과제를 지닌다. 네 가지 가치들은 칸트적 의미의 의무들을 부과하는 리스트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함양해야 할 덕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혹은 행위(doing)의 문제라기보다 존재(being)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굳이 네 가지로 제한하려

89) Matthew M. Boulton, *Life in God: John Calvin, Practical Formation, and the Future of Protestant Theology*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1), 4.

90) 같은 책, 224.

91) 하우어워스의 이 책은 다음과 같이 번역/출판되었다. 문시영, 『교회됨』(성남: 북코리야, 2010).

92) 하우어워스가 듀크대학 신문사와 인터뷰했던 내용에서 인용했다. “Faith Fires Back”(2002.1.31.) *<http://dukemagazine.duke.edu/article>.(2024.8.16. 접속)

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추구해야 할 네 가지 가치'에 주목했던 폴의 응용이자⁹³⁾ 네 가지 덕목에 주목한 고전적 4주덕(cardinal virtues)의 패러디이기도 하다. 책임, 소통, 공감, 환대의 사회적 영성을 제자도(discipleship)에 근거한 덕목들로 인식함으로써 제자됨(being disciple)을 위한 성품화의 과제로 상징하는 취지이다.

솔직히, 칼뱅의 영향을 받는 대다수 한국기독교 신앙인들은 사회적 영성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친숙하지 않을뿐더러, 거부감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영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할 듯싶다. 그 하나는 사회적 영성이 진보적 기독교의 전유물도 아니고 인문학자들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유의 정체성을 가진 것이라는 인식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기독교에 친숙한 방식으로 사회적 영성에 관심하게 하며 성품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제자도'는 두 가지를 충족시킬 기대를 담아낸다.

제자도와 동일한 것은 아니겠지만,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한국기독교에 친숙하다는 점은 중요한 응용의 접점이다. 사실,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공부에 관심한다는 것 자체는 한국기독교의 중요한 자산이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성경공부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의미 있는 요소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3·1운동의 독립선언문은 한국기독교가 공적 영역에서 최초로 드러낸 공적 표명이었다.⁹⁴⁾ 이것은 근대전환기에 성경공부와 부흥운동에서 이어져 온 흐름을 오늘의 제자훈련에 소환하여 사회적 영성의 성품화에 관심할 필요와 가능성을 말해주기에 충분하다.

93) "감사, 약속, 진실, 환대의 네 가지가 공동체 생활의 모든 면을 다루는 것은 아니며 가장 중요하다는 뜻도 아니지만, 그것들이 중심이 된다." Christine D. Pohl, *Living Into Community*, 권영주 외 역, 『공동체로 산다는 것』(서울: 조이선교회, 2014), 14.

94) Sebastian Kim, "근대 전환기 기독교의 공적 역할에 대한 이해," 윤정란 외, 『근대전환 공간에서 만들어진 사회문화현상』(서울: 보고서, 2012), 41.

III. 나오는 말

이 글은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의 모색을 위하여, 한국기독교의 대다수가 영향을 받은 칼뱅에게 그 길을 물었다. 기독교는 공공성에 무관심하고 공적 책임을 면제받은 집단인가?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관심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일까? 나아가, 사회적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무리인 것일까? 심지어 사회적 약자를 환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제기한 것은 한국기독교가 사회적 영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들에 대하여 칼뱅의 통찰을 확인하려는 취지였다.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하여, 칼뱅의 제자도에 대한 덕 윤리적 성찰을 시도하였다. 제자도와 덕 윤리 사이에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함양하려는 성화에 대한 관심사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덕 윤리를 통해 읽으면,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을 복원하였다. ‘책임’에 대해 칼뱅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시민들과의 책임과 연대를 강조했다. ‘소통’에 대하여 칼뱅은 제네바의 문제들에 적극 소통했다. ‘공감’에 관하여 칼뱅은 바울이 말한 ‘compassion’을 실천했다. 전염병이 제네바에 닥쳤을 때, 칼뱅이 병자들을 심방하고 기도하며 공감하고 위로했던 점은 중요한 사례이다. 그리고 ‘환대’의 윤리는 칼뱅 자신이 종교 난민이었으며 난민목회를 실천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칼뱅의 제자도가 루터의 ‘일상으로 돌아온 제자도’를 계승하고 그 지평을 확장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칼뱅은 루터의 일상에 대한 관심을 공공성을 지닌 시민적 관심으로 풀어냈다. 칼뱅에게서 제네바라는 도시가 일상이었고 칼뱅은 ‘도시현상으로서의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었다. 그는 일상의 행위를 위한 영적 행동지침을 제시했으며 시민적 섬김을 거룩한 소명으로 격상시켰다. 이러한 뜻에서, 칼뱅의 사회적

영성은 '성화로서의 시민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제자도에 있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외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겪으며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제자도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영성의 성품화에 관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제자윤리'를 위한 성찰로 확장되어야 한다. 칼뱅의 사회적 영성에는 기독교의 고유한 차별성이 담겨있으며 현대인문학에서 제시한 문제의식을 넘어서는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그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한국기독교의 제자훈련에 사회적 영성에 대한 관심이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참고문헌

- 김선권, “칼뱅에게서 그리스도의 모방: 삶의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 『한국개혁신학』 50(2016), 130-168.
- 김진혁, “환대와 선택: 환대의 신학을 위한예정론의 재해석.” 『장신논단』 53/1 (2021), 95-125.
- 박효근, “주네브,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다.” 『서양중세사연구』 46(2020), 45-73.
- 송용원, 『칼뱅의 공동선: 프로테스탄트 사회윤리의 신학적 토대』. 서울: IVP, 2017.
- 손수호, “칼뱅 신학에 나타난 신학의 사회포용에 관한 연구.”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63(2022), 181-209.
- 안교성, “칼뱅의 난민사역과 한국교회에 대한 함의.” 『한국교회사학회지』 45 (2016), 155-181.
- 안상혁, “제네바 교회와 신앙교육: 칼뱅의 제1차, 제2차 《신앙교육서》를 중심으로.” 『신학정론』 32/2(2014), 9-65.
- 윤대선, 『레비나스의 타자철학』. 서울: 문예출판사, 2017.
- 조용훈, “칼뱅의 정치사상과 그 사회윤리적 함의에 대한 한 연구.” 『장신논단』 38(2010), 215-236.
- 허도화, “교회의 사회적 영성 회복: 공동예배를 통한 사회화 훈련을 중심으로.” 『신학과 선교』 52(2017), 195-232.
- Callhoun, David B. *Knowing God and Ourselves*. 홍병룡 역. 『칼뱅을 읽다』. 서울: 조이북스, 2018.
- Calvinus, Ioannes.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문병호 역. 『기독교강요(최종판)』.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3.
- Kim, Sebastian, “근대 전환기 기독교의 공적 역할에 대한 이해.” 윤정란 외. 『근대 전환공간에서 만들어진 사회문화현상』. 서울: 보고사, 2012. 41-59.
- McGrath, Alistar E. *A Life of John Calvin*. 이은진 역. 『장 칼뱅의 생애와 사상』. 서울: 비아토르, 2019.
- _____. *Roots That Refresh*. 박규태 역.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 서울: 좋은씨앗, 2021.
- Pohl, Christine D. *Living Into Community*. 권영주 외 역. 『공동체로 산다는 것』.

서울: 조이선교회, 2014.

- Boulton, Matthew M. *Life in God: John Calvin, Practical Formation, and the Future of Protestant Theology*.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1.
- Dreyer, Wim A. "John Calvin as 'public theologian' in view of his 'Commentary on Seneca's de Clementia.'" *HTS Teologiese Studies/Theological Studies* 74/4(2018), 1-8.
- Haight, Roger., Pach III, Alfred, and Kaminski, Amanda A. eds., *A Civic Spirituality of Sanctification*. New York, NY: Fordham University Press, 2024.
- Hauerwas, Stanley. *Vision and Virtue: Essays in Christian Ethical Reflection*.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 _____.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4.
- Herd, Jennifer. *Putting on virtue: A Legacy of the Splendid Vice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 Intan, Benjamin F. "Calvin and Neo-Calvinism on Public Theology." *UNIO CUM CHRISTO* 6/2(2020), 41-59.
- Kim, Minseok. "John Calvin as Public Theologian?: Reading Calvin's Theology in the Light of Contemporary Discourses in Public Theology with Reference to the Korean Context." Dissertation of Ph. D., Stellenbosch University, 2020.
- McKim, Donald K.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Pohl, Christine D.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9.
- Potgieter, P. C. "John Calvin on Social Challenges." *Acta Theologica* 28(2019), 72-87.
- Sytsma, David S. "John Calvin and Virtue Ethics: Augustinian and Aristotelian Themes." *Journal of Religious Ethics* 48/3(2020), 519-556.
- Varma, Ashima. "Sin, Grace, and Virtue in Calvin: A Matrix for Dogmatic Consideration." *Scottish Bulletin of Evangelical Theology* 28/2(2010).

230 『기독교사회윤리』 제61집

177-194.

Vos, Pieter, "Calvinist among the virtues: Reformed theological contributions to contemporary virtue ethics," *Studies in Christian Ethics* 28/2(2015), 203.

논문투고일: 2025년 02월 03일

심사개시일: 2025년 03월 17일

게재확정일: 2025년 04월 05일

• 국 문 초 록 •

칼뱅의 영향을 크게 받은 한국기독교가 책임, 소통, 공감, 환대 등 사회적 영성의 결여를 지탄받는 현상과 관련하여, 이 글은 칼뱅에게 길을 묻는다. 칼뱅은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을 복원하라고 교훈한다. 칼뱅의 사회적 영성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도에 근거한 것으로, 책임, 소통, 공감, 환대의 실천을 권한다. 칼뱅의 관점은 루터의 '일상으로 돌아온 제자도'를 공공성을 지닌 시민적 맥락에서 풀어낸 것이었다. 이것은 제네바의 맥락에서 '도시현상으로서의 종교개혁'을 이룬 '시민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칼뱅의 사회적 영성은 '성화'를 그리스도인다운 성품함양의 문제로 해석한 하우어위스와 일맥상통한다. 제자훈련에 관심하는 한국기독교가 사회적 영성에 주목해야 하고, 사회적 영성의 성품화에 힘써야 함을 말해 준 것으로 응용하여 읽을 수 있다.

주제어: 제자도, 사회적 영성, 책임, 소통, 공감, 환대
